

외국인 학부생 대상 교양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화 항목 분석 연구

장 미 정 (고려대학교)
<rosej3@korea.ac.kr>



국문요약

본 연구는 외국인 학부생들이 교양 한국어 교재 텍스트에서 어떠한 문화 항목을 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에 반영할 수 있는 문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외국인 학부생들이 수강하는 교양 한국어 강의에서 사용되는 4종의 교재였다. 문화 항목 분석의 기준은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서 제시된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의 문화 범주를 변형한 것이었다. 분석 결과 4종의 교양 한국어 교재에서는 한국 사회, 한국의 예술과 문화, 한국인의 생활, 한국인의 가치관, 한국의 문화유산, 한국의 역사, 외국인의 한국생활의 순으로 문화 항목이 비중을 두고 다루어지고 있었다. 교양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화 항목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에서 학교생활에 대한 문화 항목이 보다 중점을 두고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범주의 문화 내용이 다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인의 입장에서 본 문화만이 아니라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 문화 항목 또한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전통 문화의 경우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비계 역시 제시되어야 함을 밝혔다. 아울러 교재에서는 문화 항목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문화를 향유함에 있어 비판적 사고를 키우며, 상호문화주의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활동이 제시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한국 문화, 문화 교육, 교양 한국어 교재,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학부생들이 교양 한국어 교재 텍스트에서 어떠한 문화 항목을 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에 반영할 수 있는 문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외국인 학부생을 포함하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어를 학습하며 한국어를 사용하여 학업 공동체에서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교류하게 된다. 공동체 구성원과의 교류를 위해서 학습자들은 한국어 능력뿐 아니라 학업 공동체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역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이해는 문화 교육을 통해 함양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이 문화를 접하고 학습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이다.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 교육 환경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이정희 외(2016, 136)에서는 학습자들이 문화를 학습함에 있어 드라마, 교재, 영화, 유튜브, SNS 등의 순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드라마, 영화, 유튜브, SNS가 학습자들이 생활 맥락에서 접하는 대중매체 혹은 온라인 서비스라고 할 때, 오프라인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에서는 교재가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교수·학습 맥락에서의 문화 교육의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 교재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양 한국어 교재에서 어떠한 문화 항목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 외국인 학부생을 포함한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에 반영할 수 있는 문화 교육의 방향을 제안할 것이다.

II.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대상의 문화 교육

강승혜 외(2010, 26-27)에 따르면 문화란 1900년대 초반에는 주로 한 국가나 민족이 이룬 위대한 성취를 가리키는 것이었으나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한 공동체의 생활 방식을 가리키게 되었다고 한다. N. Brooks는 이 두 가지 문화를 대문화와 소문화로 구분하였으며

공식적인 문화를 대문화(Culture)로, 생활 방식에 나타나는 문화를 소문화(culture)로 나누었다. 이후 Hemmerly에 의해 체계적인 문화 분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Hemmerly는 문화를 정보문화, 행동문화, 성취문화로 나눌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문화를 나누는 유용한 분류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문화를 구분함에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Hemmerly(1996)의 문화 분류는 다음과 같다.¹⁾

- 정보문화: 평균적인 교육을 받은 모국어 화자들이 그들의 사회, 지리, 역사, 영웅 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와 사실
- 행동문화: 일상생활의 총체를 지칭. 한 사회 속에서 한 민족이 행동하는 양식으로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환경과 전통의 상호작용
- 성취문화: 목표어 문화에서 성취된 업적

문화의 정의와 관련해 Brown(2007, 202)에서는 문화란 뿌리 깊은 행동 및 인식 양상의 집합으로서 제2언어 학습에서 매우 중요하며, 언어는 문화의 일부이고 문화는 언어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둘은 떼어낼 수 없고 제2언어 습득은 제2문화의 습득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언어 학습에는 문화 학습이 결부될 수밖에 없으며 문화 학습의 중요성을 거듭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Brown(2007)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여 한국어교육에서도 문화 교육 연구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간 문화 교육의 연구 성과를 분석한 강승혜(2012)는 1980년대부터 2011년까지의 한국 문화 교육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분석의 대상이 된 논문은 학위논문이 164편, 학술지가 222편이었다. 문화 교육 연구는 주로 문화 교육의 개념과 교육 현황을 다룬 '문화 교육 일반', 매체나 문학을 활용한 '문화 교수 방안', 교육 항목과 관련한 '문화 교육 내용', 문화 내용을 다룬 '교재 및 자료 개발', 요구 분석을 통한 교수요목 설계를 다룬 '교육과정 개발'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분석의 대상이 된 문화 연구를 학습자 대상별로 살펴볼 때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여성 결혼 이민자, 직업 목적 한국어 학습자, 재외 동포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다. 이때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 교육 연구는 박운연(2010), 이광재(2006), 이동배(2007)와 같이 국외 대학에서의 문화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외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재 개발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었다. 그 외에 중국 유학생을 위한 초급 한국어 문화 교재 연구(란천우 2010), 한국학 전공자를 위한 교재 개발 방향(이혜영 외

1) Hemmerly(1996)의 문화 분류는 강현화(2010, 5)에서 재인용하였다.

2006)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상의 연구를 살펴볼 때 전체 한국어 학습자 중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에 비해 문화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문화 교육이 학습자 대상별로 특수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문화 교수의 목표가 학습자의 요구와 연계되며, 학습자별로 접근할 때 교육의 효용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강현화 2010, 21). 강현화(2010, 22)에서는 학습자 대상별로 문화 교수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표 1>과 같이 밝혔다.

<표 1> 학습 목적별 문화 교수의 내용과 범위(강현화 2010, 22)²⁾

학습목적	시기별		문화지식	문화방식
	전통문화	현대문화	정보문화·성취문화	행동문화
이주 목적	●	●	●	●
학문 목적	◐	●	○	●
일반 목적	◐	●	◐	●
직업 목적	○	●	○	●
재외 동포	◐	●	◐	●

강현화(2010, 22)에서는 학문 목적 학습자의 경우 전통문화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며, 문화 지식 자체에 대한 요구 또한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밝혔다. 반면 현대문화와 행동문화에 대한 교수의 필요성은 높으며 특히 격식적 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학교 환경에 관련된 사제 간 문화 등에 대한 상황별 문화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가 접하는 학문 공동체에 대한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김서형(2009)와 황설운(2013)을 꼽을 수 있다. 김서형(2009)은 학부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구 조사를 하여 교양 과목으로서 문화 수업이 어떠한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설문 조사 결과 외국인 대학생들은 주로 한국의 사회와 관련하여서는 ‘학교(대학 생활), 매체, 역사, 직장, 경제’를 배우고 싶어 하였으며, 한국의 예술과 관련하여서는 ‘영화, 연극, TV 드라마, 음악’을 배우고 싶어 했다. 한국의 언어와 관련하여서는 ‘유행어, 속어, 은어, 속담과 관용어, 높임말과 반말’을 배우고자 하였으며, 한국의 생활과 관련하여서는 ‘대인 관계, 음식, 가치관과 성격(특성, 습관), 풍속과 전통(명절), 에티켓(예절), 가족 행사(결혼, 제사 등), 성(남녀)와 관계되는 내용,

2) <표 1>에서 기호 ‘●, ◐, ○’는 동일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교수의 중요성이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과 가정생활'에 대해 배우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교육에 초점을 둔 선두적인 연구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떠한 항목에 학습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밝힌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황설운(2013)은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육 항목을 선정함에 있어 학습자들에게 의사소통 일지를 작성하게 하여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양상을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문화 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문화 항목을 선정하고 제시하였다. 황설운(2013)에서는 문화 교육의 내용을 '학업문화, 일상생활문화, 언어문화, 사회문화, 예술문화'로 영역을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자의 실제 의사소통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한 연구이기에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 교육 연구는 해외 대학에서의 교육과 교재 개발 방안 연구로 시작되었으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습 요구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해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교재 텍스트에서 문화 항목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수·학습 맥락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 교육에 대한 현황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외국인 학부생 대상 교양 한국어 교재에서의 문화 항목 분석 방법

교수·학습 맥락에서의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교재³⁾이다.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는 학습자가 참여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따라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유경 외(2016)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을 대학 입학 전과 후로 구분하였으며 대학 입학 후 교육 과정은 교양 한국어 과정과 전공 한국어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본

3)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 문화 학습을 위해 개발된 교재로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회와 문화(조항록 2008)',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권영민 외 2009)', '외국인을 위한 살아있는 한국현대문화(이선 이 외 2011)', '생활 속 한국문화 77(이혜영 외 2011)' 등이 있으나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 교재는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 전용 교재가 아닌 학문 목적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교재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교양 한국어 과정에서 사용되는 교재이다. 교양 한국어 과정에서 사용되는 교재는 전공 한국어 과정에 사용되는 교재에 비해 각 전공의 특수성이 덜해 범교과적인 성격의 내용을 다루며, 대학 입학 전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교재에 비해 실제 학문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용되기에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특수성을 보다 갖추고 있다.

〈표 2〉 이유경 외(2016, 166)에 제시된 ‘학문 목적 한국어 각 과정의 목표’

구분		목표	비고	
대학 입학 전	공통 한국어 과정	한국어 수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사소통능력 함양	-	
	학문 기초 한국어 과정	학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능력 함양	-	
대학 입학 후	교양 한국어 과정	공통 한국어 과정	한국어 수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사소통능력 함양	선택 이수
		학문 기초 한국어 과정	학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능력 함양	필수 이수
		대학 글쓰기 과정	학업 수행에 필요한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 함양	선택 이수
	전공 한국어 과정	전공 지식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전공 관련 어휘 및 개념, 주제 등을 학습	-	

교양 한국어 과정을 〈표 2〉에서 살펴보면 이 중 공통 한국어 과정은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특성이 덜한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며, 학업 수행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학문 기초 한국어 과정과 대학 글쓰기 과정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유경 외(2016, 162)에 따르면 다른 과정과 달리 대학 글쓰기 과정은 각 대학에서 필수 혹은 공통 이수 교과목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인 학부생이라면 졸업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누구나 해당 교과목을 필히 수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의 특수성을 보다 갖추고 있으며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에서 사용되는 교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교재는 다음과 같다.⁴⁾

4) 이유경(2016, 161)에 따르면 해당 교재는 2016년 기준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많은 상위 학교에 교양 필수 혹은 공통 과목으로 외국인 유학생 분반이 개설된 곳에서 개발되어 사용되는 교재들이다. 이 교재들의 편찬 목적은 글쓰기 능력 혹은 말하기 능력 함양 등으로 각기 다르며, 문화 향목을 교육하기 위해 개발된 교재는 아니다. 하지만 이 교재들은 학문 목적 학습자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교과목에 사용되는 교재여서, 해당 문화 향목이 학습자들에게 노출되고 습득될 수 있는 기회가 공통적으로 제공되기에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표 3〉 분석 대상 교재

교재명	저자
외국인을 위한 글쓰기 1: 나를 위한 글쓰기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외국인들을 위한 글쓰기 교재 편찬위원회
유학생을 위한 대학 글쓰기	
외국인을 위한 글쓰기	한양대학교 교양국어교육위원회
외국인을 위한 말하기	

이들 교재 텍스트에서 어떠한 문화 항목들이 다루고 있는지 살펴볼 때 필요한 것은 문화 항목이 범주화된 분류 기준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교육 관련 연구인 김서형(2009)와 황설운(2013)의 문화 분류 기준을 우선으로 참조하고 김중섭 외(2011)인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서 제시된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의 문화 범주’를 참조하고자 한다. 김중섭 외(2011)에서 제시된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의 문화 범주’는 비록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교육을 위해 진행된 연구 성과는 아니지만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참조할 수 있는 ‘표준 교육과정’으로서 해당 연구 결과는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변이형을 도출할 수 있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김중섭 외(2011)의 ‘문화 교육 내용’은 문화 요소를 단순히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문화 교육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하였으며 1단계 보고서, 기타 참고 자료, 교재 분석을 통해 문화 항목을 추출하고 문화 전문가들의 검증을 통해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김중섭 외(2011)를 본 연구의 분석 기준 설정에 추가해, 김서형(2009)⁵⁾, 김중섭 외(2011), 황설운(2013)⁶⁾을 참조하여 세운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은

5) 김서형(2009, 95)에서는 외국인 대학생을 위한 교육 문화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구분	문화 내용
한국의 사회	역사, 정치, 경제, 교육, 종교, 학교(대학 생활), 직장, 지역 문화, 지리/관광, 최근 시사 뉴스, 군대, 매체(방송, 신문, 인터넷)
한국의 예술	문학, 음악, 미술, 무용(춤), 영화/연극/TV드라마, 만화
한국의 언어	호칭어, 높임말과 반말, 속담과 관용어, 유행어/속어/은어
한국의 생활	풍습과 전통(명절), 가치관과 성격(특성, 습관), 음식, 주택, 옷, 가족 행사(결혼, 제사 등), 놀이/게임, 성(남녀)과 관련된 내용, 인간관계(대인 관계), 운동, 에티켓(예절), 가족/가정생활

6) 황설운(2013, 261-269)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육 항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유형	세부 영역
학업문화	수강, 학내 생활, 대인 관계
일상생활문화	의식주, 라이프 스타일, 세시풍속
언어문화	언어의 형태, 언어의 활용
사회문화	정치, 경제, 교육, 기타
예술문화	문학, 매체 문화, 기타

다음과 같다.

〈표 4〉 한국 문화 항목의 분석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한국인의 생활	일상생활	의생활, 주생활, 식생활, 계절활동, 경제활동
	여가생활	여행, 친목모임/동호회, 스포츠
	가정생활	가사, 가족 생활, 가족 관계
	학교생활	수강, 학내 생활, 대인 관계
	직장생활	업무, 사내 생활, 대인 관계
	언어생활	이름과 호칭, 인사, 한글과 한국어, 몸짓 언어
한국 사회	세시풍속	명절, 주요 절기
	관혼상제	관례/혼례, 장례/제례
	정치	남북관계, 국제관계, 정치제도
	경제	경제제도, 경제정책
	교육	교육열, 교육제도, 교육문제
	사회	복지정책, 사회제도, 공휴일, 사회문제
	지리	한국의 지리/지형, 대표 지역과 축제
	교통	교통수단, 교통체계
	통신	과학 기술의 발전
	다문화사회	다문화 현상
한국인의 가치관	가치관	정서, 건강, 성역할, 가치관의 변화
	사고방식	빨리빨리 행동, 민간신앙, 종교
한국의 예술과 문학	예술	전통/현대 음악, 전통/현대 미술, 전통/현대 공연
	문학	문학작품
	대중문화	영화/드라마/연극
한국의 역사	시대별 역사	시대
	역사적 인물	유명 인물
한국의 문화유산	문화재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세계문화유산
	상징물	한국의 상징
외국인의 한국생활	사회생활	공공기관 이용

〈표 4〉는 문화 범주가 상세하게 이루어진 김종섭 외(2011, 93-95)의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의 문화 범주’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다만 김종섭 외(2011)에서 ‘한국인의 생활’ 중 ‘공동체 생활’로 제시되었던 부분은 학문 목적 학습자가 속한 공동체의 특성이 부각되도록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로 중분류를 조정하였다. 또한 한류의 주역인 ‘K-POP’과 ‘드라마’ 등을 분류할 때 ‘K-POP’은 ‘전통/현대음악’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드라마’ 등을 분류할 수 있는 범주가 김종섭 외(2011)에는 없어 ‘한국의 예술과 문학-대중문화-영화/드라마/연극’을 추가하였다.

IV. 외국인 학부생 대상 교양 한국어 교재에서의 문화 항목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외국인 학부생 대상 교양 한국어 교재인 ‘외국인을 위한 글쓰기 1: 나를 위한 글쓰기’, ‘유학생을 위한 대학 글쓰기’, ‘외국인을 위한 글쓰기’, ‘외국인을 위한 말하기’에 제시된 텍스트의 중심 소재로서 어떠한 문화 항목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각 교재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희대학교의 ‘외국인을 위한 글쓰기 1: 나를 위한 글쓰기’

‘외국인을 위한 글쓰기 1: 나를 위한 글쓰기’ 교재는 머리말에 의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 최고의 순간, 나를 슬프게 하는 것, 내가 닮고 싶은 사람, 타인과 나’라는 주제를 통해 자신의 삶과 경험을 한국어로 사유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문화 항목은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소재로 사용되기보다는 ‘나’와 관련된 경험 혹은 사건의 중심 소재로 다루어졌다. 이 교재에서는 〈표 5〉와 같이 ‘스포츠, 장례, 경제정책, 가치관의 변화’와 관련된 항목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외국인을 위한 글쓰기 1: 나를 위한 글쓰기’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 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문화 항목
한국인의 생활	여가생활	스포츠	놀이기구
한국 사회	관혼상제	장례/제례	언니의 유언장(장례)
	경제	경제정책	착한 초콜릿(윤리적 소비)
한국인의 가치관	가치관	가치관의 변화	가족에 대한 인식

‘놀이기구, 언니의 유언장, 착한 초콜릿, 가족에 대한 인식’은 읽기 텍스트에서 중심 소재로 다루어져 학습자들에게 소재와 관련된 문화에 대해 전달하는 바가 다양해질 수 있었다. 예컨대 ‘언니의 유언장’이라는 글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는 가족을 잃은 사건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투병 생활, 장례 절차 등과 관련된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인식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 교재는 집필 목적에 따라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의식의 흐름을 보여주는 텍스트가 많았고 문화 항목이 중심 소재로 사용된 경우는 적었다.

2. 경희대학교의 ‘유학생을 위한 대학 글쓰기’

‘유학생을 위한 대학 글쓰기’ 교재는 ‘요약하기, 비평하기, 분석하기, 종합하기’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과 같이 소분류를 기준으로 할 때 7개 영역의 문화 항목이 중심 소재로 교재에 다루어지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내 생활’과 ‘전통/현대 미술’과 관련된 항목이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유학생을 위한 대학 글쓰기’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 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문화 항목
한국인의 생활	학교생활	학내 생활	대학 내 상업시설, 대학 복지시설 상업화, 반값 등록금, 대학의 기업화
한국 사회	사회	사회제도	금연구역, 대형 할인점, 동물보호법
	통신	과학 기술의 발전	디지털 카메라의 발전
한국인의 가치관	가치관	가치관의 변화	명절 스트레스
한국의 예술과 문학	예술	전통/현대 음악	‘싸이’ <강남스타일>
		전통/현대 미술	<뽕 잡는 매>, 고찬규 <Alone>, 김홍도 <씨름>, 김득신 <야묘도추>, 김홍도 <송하맹호도>, 신윤복 <월화정인>
	대중문화	영화/드라마/연극	영화 <화차>

이 교재 역시 문화 항목은 해당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보다는 텍스트 속에서 중심 소재로 다루어져 그에 대한 논리적인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대학 내 상업시설, 대학 복지시설 상업화, 반값 등록금, 대학의 기업화, 금연구역, 대형 할인점, 동물보호법’은 그것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을 담은 텍스트가 제시되었다. 아울러 K-POP인

‘강남스타일’에 대한 논평, 영화 ‘화차’에 대한 영화평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문화 항목에 대한 정보 지식을 넘어서 그 속에 포함된 필자의 가치관 혹은 의식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교재는 미술 작품을 제시하여 작품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글을 쓰게 하는 연습이 많았다. 학습자들은 글쓰기 연습을 하며 한국 작품을 감상하는 기회 또한 갖게 되는 것이다.

3. 한양대학교의 ‘외국인을 위한 글쓰기’

‘외국인을 위한 글쓰기’ 교재는 ‘한국어 문법 익히기, 한국어 표현 익히기, 글쓰기 소재 찾기, 과정에 따른 글쓰기, 글쓰기의 실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7>과 같이 대분류 중 한국의 역사를 제외하고 고루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소분류를 기준으로 할 때 12개 영역의 문화 항목이 교재에 다루어지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글과 한국어’와 ‘문학작품’과 관련된 항목이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외국인을 위한 글쓰기’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 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문화 항목
한국인의 생활	일상생활	식생활	한국과 일본의 식문화
	언어생활	한글과 한국어	관용어, 속담, 우리말 바로 세우기
한국 사회	사회	사회문제	외래동물 잡기 운동, 사이버 교육
	지리	한국의 지리/지형	한국 자연(산수)의 미
한국인의 가치관	사고방식	빨리빨리 행동	대충대충 문화
		민간신앙	제사상
		종교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예술과 문학	예술	전통/현대 미술	이중섭 <흰소>
	문학	문학작품	김승옥 <무진기행>, 윤홍길 <장마>, <심청전>, <오성과 한음>, 이문열 <새지 않는 밤>, 최명희 <혼불>, 법정 <무소유>, 피천득 <나의 사랑하는 생활> 등
	대중문화	영화/드라마/연극	영화 <괴물>
한국의 문화유산	문화재	유형 문화재	경복궁
외국인의 한국생활	사회생활	공공기관 이용	한국인의 예의(자리 양보, 정)

이 교재에서는 문화 항목이 텍스트의 중심 소재로 사용된 경우뿐 아니라 학습과 관련하여 설명이 제시된 경우가 있었다. 관용어와 속담은 교재 본문에 내용 설명이 되어 있었고, 부록에 한국에서 자주 쓰이는 관용어와 속담의 목록도 제시되어 있었다. 특히 이 교재에서는 글의 전개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문학 작품에서 한두 단락의 텍스트가 제시된 경우가 많았다. 학습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식문화’, ‘경복궁’ 등이 중심 소재가 된 텍스트를 통해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우리말 바로 세우기’, ‘대충대충 문화’가 중심 소재가 된 텍스트를 통해 필자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영화 ‘괴물’과 관련하여서는 감상문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외국인이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관찰하여 기고한 ‘대충대충 문화’, ‘한국인의 예의’와 관련된 글 2편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문화를 어떻게 경험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게 해 줄 것이다. 즉 이 교재를 통해서 학습자는 문화 항목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인과 외국인의 의식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4. 한양대학교의 ‘외국인을 위한 말하기’

‘외국인을 위한 말하기’ 교재는 ‘효과적인 말하기와 듣기, 문화로 말하기’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문화로 말하기’는 ‘서울이라는 도시, 디지털 문화, 한국 사회, 문학, 대중문화 영상콘텐츠’를 소재로 한 말하기 연습이 제시되어 있다. 문화 전용 교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재 구성에서 문화를 전면에 내세워 언어 연습을 하게 하는 점은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 교재에서는 문화 항목이 <표 8>과 같이 대분류 중 한국의 역사와 외국인의 한국생활을 제외하고 전 영역에서 고루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소분류를 기준으로 할 때 12개 영역의 문화 항목이 교재에 다루어지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문제’, ‘대표 지역과 축제’, ‘문학작품’과 관련된 항목이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외국인을 위한 말하기’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 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문화 항목
한국인의 생활	학교생활	학내 생활	동아리 가입 권유
	직장생활	사내 생활	면접
	언어생활	이름과 호칭	호칭어와 지칭어, 대우법(경어법), 공손법
한국 사회	교육	교육문제	한자 조기 교육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문화 항목
	사회	사회문제	한국의 된장녀, 잊혀질 권리, 한국 사회의 소수자
	지리	대표 지역과 축제 ⁷⁾	서울, 인사동, 서울의 지하철 등
	통신	과학 기술의 발전	휴대폰을 통한 의사소통
한국의 예술과 문학	예술	전통/현대 음악	이적 <왼손잡이>, 박선주 <오즈의 마법사>
		전통/현대 미술	변상벽 <묘작도>
	문학	문학작품 ⁸⁾	유하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2>, 박상순 <불멸>, 이대흠 <몸 안의 사랑>, 최승호 <북어>, 정지용 <호수>, 김승희 <재개봉관>, 기형도 <빈집>, 정호승 <미안하다>, 기형도 <엄마 걱정>, 황지우 <벽3>, 장정일 <꽃>, 황지우 <심인>, 유하 <무림일기>, 박정대 <장만옥>, 함민복 <광고의 나라> 등
			대중문화
한국의 문화유산	문화재	유형 문화재	허균 <고궁(비원)산책>

이 교재에서는 호칭어와 지칭어, 대우법, 공손법과 같은 문화 항목에 대한 내용 설명이 제시된 경우와 문화 항목이 텍스트 속에서 중심 소재로 사용된 경우가 있었다. 특히 문학작품이 많이 제시되었는데 박상순의 ‘불멸’과 같은 시 작품이 총 11개가 교재에 제시되었다. K-POP으로는 ‘왼손잡이’, ‘오즈의 마법사’의 가사가 제시되었고, 영화 ‘여고괴담’, 드라마, 광고에 대한 글이 제시되었다. 외국인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어의 호칭’에 대한 글 역시 제시되었다. 이 교재를 통해서 학습자는 특히 언어생활과 관련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인의 해석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이 교재에서는 문화 항목에 대한 낱이 선 담론들을 학습자들이 접하게 된다.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화를 향유하는 데에 비판적 사고를 갖고 문화를 바라볼 수 있게 할 것이나 주어진 텍스트나 소재들이 고급 학습자들이 소화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많은 편이었다. 따라서 문화 항목을 제시하는 데 있어 학습자 이해를

7) 일부 지역이 텍스트의 중심 소재로 다루어지지 않고 교재에 지명과 사진 자료 등이 제시되는 경우는 <표 8>에 제시하지 않았다.

8) <표 8>의 분석 결과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교재의 활동 지시문에서 소설과 영화의 작품명만 제시되는 경우도 있었다.

돕기 위해 어떠한 부분이 지원되어야 하는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보면 <표 9>와 같다. <표 9>에서 ‘교재 A’는 경희대학교의 ‘외국인을 위한 글쓰기 1: 나를 위한 글쓰기’, ‘교재 B’는 경희대학교의 ‘유학생을 위한 대학 글쓰기’, ‘교재 C’는 한양대학교의 ‘외국인을 위한 글쓰기’, ‘교재 D’는 한양대학교의 ‘외국인을 위한 말하기’를 가리킨다.

<표 9> 외국인 학부생 대상 교양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화 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A교재	B교재	C교재	D교재
한국인의 생활	일상생활	의생활				
		주생활				
		식생활			●	
		계절활동				
		경제활동				
	여가생활	여행				
		친목모임/동호회				
		스포츠	●			
	가정생활	가사				
		가족 생활				
		가족 관계				
	학교생활	수강				
		학내 생활		●		●
		대인 관계				
	직장생활	업무				
		사내 생활				●
		대인 관계				
	언어생활	이름과 호칭				●
		인사				
		한글과 한국어			●	
몸짓 언어						
한국 사회	세시풍속	명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A교재	B교재	C교재	D교재
	관혼상제	주요 절기				
		관례/혼례				
		장례/제례	●			
	정치	남북관계				
		국제관계				
		정치제도				
	경제	경제제도				
		경제정책	●			
	교육	교육열				
		교육제도				
		교육문제				●
	사회	복지정책				
		사회제도		●		
		공휴일				
		사회문제			●	●
	지리	한국의 지리/지형			●	
		대표 지역과 축제				●
	교통	교통수단				
		교통체계				
	통신	과학 기술의 발전		●		●
다문화사회	다문화 현상					
한국인의 가치관	가치관	정서				
		건강				
		성역할				
		가치관의 변화	●	●		
	사고방식	빨리빨리 행동			●	
		민간신앙			●	
		종교			●	
한국의 예술과	예술	전통/현대 음악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A교재	B교재	C교재	D교재
문학		전통/현대 미술		●	●	●
		전통/현대 공연				
	문학	문학작품			●	●
	대중문화	영화/드라마/연극		●	●	●
한국의 역사	시대별 역사	시대				
	역사적 인물	유명 인물				
한국의 문화유산	문화재	유형 문화재			●	●
		무형 문화재				
		세계문화유산				
	상징물	한국의 상징				
외국인의 한국생활	사회생활	공공기관 이용			●	

대분류를 기준으로 볼 때 4종의 외국인 학부생 대상 교양 한국어 교재에서는 ‘한국 사회, 한국의 예술과 문학, 한국인의 생활, 한국인의 가치관, 한국의 문화유산, 한국의 역사, 외국인의 한국생활’의 순으로 문화 항목이 다루어졌으며 ‘한국의 역사’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교재별로 다루고 있는 문화 항목의 범주(소분류 기준) 수는 A교재는 4개, B교재는 7개, C와 D 교재는 12개로 편차가 심함을 알 수 있다.

교재에서 한국인의 생활과 관련해서는 일상생활에서는 한식에 대한 항목이 제시되고 있으며 학교생활 및 취업법과 관련된 항목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한국 사회와 관련해서는 교육, 경제, 사회 분야에서 논쟁이 있을 수 있는 항목이 다루어졌고 한국의 대표 지역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루었다. 한국인의 가치관과 관련해서는 시대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한국의 예술과 문학에서는 한국의 미술 작품, 시, 소설이 주로 제시되었다. 한국의 문화유산으로는 경복궁, 비원이 소개되었다. 아울러 외국인의 한국생활은 대중교통에서 자리양보 모습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이 제시되었다.

각 교재에서 다루어진 문화 항목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제언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외국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교양 한국어 교재에서 학교생활에 대한 문화 항목이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인 김서형(2009), 강현화(2010), 황설운(2013)에서 논의되었듯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 교육에서는 사제 관계, 선후배 관계에 대해 충분히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 요구도 높았다. 하지만 분석 교재에서는 대학 내 상업시설, 반값

등록금, 동아리 가입 등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있었다. 물론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이 실제 생활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지만 교수·학습의 맥락에서 학교생활에 대한 학습 요구 역시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교재에 해당 항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는 교재에 다양한 범주의 문화 항목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재의 편찬 목표에 따라 다룰 수 있는 문화 항목이 달라지겠으나 교재 분석을 했을 때 교재별로 다루고 있는 문화 항목 범주의 편차가 큼을 알 수 있었다. 교재가 학습자들이 문화를 학습하는 데에 주요한 자료가 됨을 고려할 때 가능한 다양한 범주의 문화 항목이 다뤄져 학습자들에게 교재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본 문화만이 아니라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 문화 항목 또한 다양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습자로 하여금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한국 문화를 향유하고 관련 항목에 대해 담론을 생산하는 참여자로 동기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넷째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 즉 전통 문화 항목을 다룸에 있어서는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비계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경복궁’에 대한 텍스트에는 ‘척, 단, 해태, 육조, 아문, 행랑, 성루’ 등이 포함되어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문화 항목에 대해 흥미를 잃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사진 자료, 어휘 설명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는 문화 항목을 제시함에 있어 문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문화를 향유함에 있어 비판적 사고를 키우며, 상호문화주의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활동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한 교재에서는 문화 항목을 통해 정보 제공과 비판적 사고력 제고는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상호문화주의에 입각한 활동은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문화 항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에서 공동체 구성원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교양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화 항목을 분석하고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 교육의 방향과 관련하여 제언하였다. 한국어교육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학습에 대한 연구에 비해 학습자들이 접하는 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 교육 역시 관심을 가지고 학습자들의 학습 요구에 부합하는 교재와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양 한국어 과정에서 사용되는 일부 교재를 대상으로 문화 항목 분석이 이루어졌지만, 각 교육과정에 따라 문화 교육 내용 마련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 교육 역시 학습자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교수요목,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마련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 강승혜 외. 2010. 한국문화 교육론. 형설출판사.
- 강승혜. 2012. 한국문화 교육 연구 동향 분석: 주제와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9(1), 1-38.
- 강현화. 2010. 문화교수의 쟁점을 통해서 본 문화교수의 방향성 모색. 한국언어문화학 7(1), 1-30.
- 김서형. 2009. 한국어 수행 향상을 위한 문화 교육 연구. 한국어학 44, 83-109.
- 김중섭 외. 2011.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국립국어원.
- 란천우. 2010. 중국유학생을 위한 초급 한국어 문화 교재 구성 방안.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운연. 2010.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 의 문화 교육 연구. 한국어교육 21(1), 175-195.
- 이광재. 2006. 중국 내 대학생용 한국문화교재 개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1, 191-206.
- 이동배. 2007. 호주 대학의 한국어 교재 개선 방향: 초급단계의 문화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8(2), 267-284.
- 이유경 외. 2016. 외국인 학부생 대상 대학 글쓰기 과목의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교육 27(4), 155-188.
- 이정희·기야메 브누아. 2016.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 교육 환경에 대한 학습자 인식 조사 연구: Byram(1997)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64, 121-155.
- 이해영 외. 2006. 한국학 전공자를 위한 한국 사회·문화 교재 개발 방향. 한국어교육 17(3)호, 209-230.
- 황설운. 2013.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육 항목 선정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제10(1), 253-273.
- Brown, H. D. 2007. Principles of Language and Teaching(5th). 이흥수 외 역. 2007. 외국어 학습·교수의 원리. Pearson Education Korea.

〈분석 교재 목록〉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외국인을 위한 글쓰기 교재편찬위원회. 2012. 나를 위한 글쓰기. 에세이.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외국인을 위한 글쓰기 교재편찬위원회. 2013. 유학생을

위한 대학 글쓰기. 역락.

- 한양대학교 교양국어교육위원회. 2013. 외국인을 위한 글쓰기(개정2판). 한양대학교출판부.
- 한양대학교 교양국어교육위원회. 2013. 외국인을 위한 말하기(개정2판). 한양대학교출판부.

● 투고일: 2017. 1.22. ● 심사일: 2017. 1.31. ● 게재확정일: 2017. 2.16.

Analysis of the cultural items on the college Korean textbooks for foreign undergraduates

Jang Mijung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cultural education for academic Korean learners through analyzing cultural items in the college Korean textbooks. And so this study trie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cultural education for academic Korean textbooks. The objects of the analysis are four types of textbooks that are used by academic Korean learners in the College Korean courses after entering the university. The analysis was based on the modification of the cultural categories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standard model presented in the second stage of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tandardized model for international availabil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ultural items in the textbooks were dealt with in the order of Korean society, Korean art and literature, Korean life, Korean values, Korean cultural heritage, Korean history and foreigner's life in Korea.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that cultural items about school life need to be treated more sufficiently in academic Korean textbooks and various categories of cultural contents should be addressed. In addition, it emphasized that cultural items should be presented not only from local people's viewpoint but also from foreigners' viewpoint. And that it needs to include traditional cultural items along with the scaffolding to aid the learner's understanding. It also suggested that the textbook should not only provide information on cultural items but also provide activities which can raise critical thinking in enjoyment of the culture and enhance intercultural competence.

<Key words> Korean culture, Cultural education, College Korean textbook, Korean textbook for academic purpose